

언어문법의 '무법천지' 컴퓨터 통신

압축성 암시효과 노리는 '글치기' 출판물에도 파급

컴퓨터 통신이 보편화하면서 글쓰기의 모양도 달라지고 있다. 기존의 글쓰기, 예를 들어 모든 종결형 어미에 충실하고, 모든 조사에 충실하고, 모든 문장 의미구조에 충실한 완전한 문장으로서가 아니라 간단한, 부호화한 글자의 나열이 문장을 대신하는 현상이 컴퓨터 통신의 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직 보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컴퓨터 통신에서 비롯한 문법체계의 파급이 정식 출판물에게까지 그 모습을 완연하게 내비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컴퓨터 통신 인구의 급증과 함께 출판물에서도 그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는 진단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현상에 대한 예측은 몇년 내에 기존의 문법체계를 뒤엎어 놓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견해와 언어 생활 혁명의 전조라는 정반대의 견해로 양분돼 나타나고 있다.

그림문자 부호 등 다양한 컴퓨터용 언어

올해 조선일보 신춘문예 소설부문 당선작 '앵무새의 죽음에 관하여'라는 작품의 앞부분에는 컴퓨터 통신 대화장면이 잠깐 그려진다. 이 대목을 보면 컴퓨터 통신에서 사용하는 그림문자가 몇가지 보이는데, 예를들면 '〈〉'는 쩡그린 얼굴 표정, '○.○'는 멍청한 얼굴 표정, 'Q'는 담배피우는 얼굴을 왼쪽으로 90도 누인 그림문자 등이 그것이다.

기존의 단어나 문장을 상징화한 부호로 나타내는 행위는 기계화작업이 가져다 준 압축성과 암시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현상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판을 적어도 열번 두드려야 할 문장을 간단히 두세번 두드림으로써 기존의 문법적인 문장과는 전혀 다른 문장이 완성되고, 또 상대방도 그것을 알아듣는다는 점이다.

문장의 부호화뿐만 아니라 말을 대폭 줄여 쓰는 경우나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를 글로 쓰는 경우도 많다. 「컴퓨터를 울리고 웃긴 이야기」(양은영 엮음, 새로운사람들)에 실린 '나의 하이텔 표류기'라는 글을 보면 그 현상이 출판에 정식으로 모습을 드러낼 날이 멀지 않음을 짐작케 한다.

이 글 속에는 '얼라(어린애)' '꼭 그게 고대로 되는 거예요' '아자씨'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책뿐만 아니라 채팅을 하다 보면 이런 예는 허다하게 볼 수 있다. '어서

그림문자, 부호, 받침이 생략된 간단한

문장과 함께 언어 저급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컴퓨터 통신. 보는 이에

따라서는 '언어혁명'으로까지

불려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문법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더

많다. 우려를 하는 사람들은 컴퓨터

통신 인구의 급증과 함께 일반

출판물에도 그 영향이 크게 미칠

것이라고 예측한다.

오세요'를 '오쇼요'로, '싫어'를 '시로'로, '그럼 이만!'이라는 마지막 인사는 '그럼 20000'으로 받침을 거의 생략하고 있다. 「컴퓨터를 울리고...」를 직접 편집한 남상기씨(새로운사람들 편집부)는 이런 현상에 대해 문장의 서투름을 떠나 글의 변화, 문법의 변화를 실감케 한다고 지적한다.

“글쓰기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잘못 쓴 문장을 수정 없이 그대로 통신에 올려놓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글과는 다른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대화할 때 주어를 생략하는 것처럼 컴퓨터 통신의 글에서도 통상 주어를 쓰이지 않는다. 또 말줄임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편이다. 때문에 보통의 운문과도 격을 달리하는 손질이 필요했다.”

남상기씨의 말대로라면 아직까지 컴퓨터 통신의 글이 일반 출판물의 활자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운문'이 필요한 상황으로 풀이되지만, 전자 컴퓨터를 통해 자신의 글을 발표하고 남의 글을 읽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다.

기존의 언어문법 파괴하는 혁명적 현상

컴퓨터 매니아들의 말에 의하면, 컴퓨터에서의 '글치기'는 원고지에서의 '글쓰기'와 매우 상이한 면을 보인다. 그 차이는 '깜박이는 커서의 조급함에서 일종의 생명력을 감지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듯하다. 그들은 "인간감정과 화면의 일체감"을 맛보고 "화면과 프린트된 활자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는다. 화면을 통해 문자 혹은 문체의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인데, 물론 이들에게 "그것도 글이나?"는



새로운 조명과 검토 이루어져야 할 컴퓨터 통신 언어생활.

질문은 전혀 무게를 갖지 못한다. 그 대답은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고 생음역처럼 감정을 희석시키지 않은 솔직한 글”이라는 말 뿐이다.

그렇다고 기존의 언어학자들이 컴퓨터 통신 매니아들의 글을 고운 시선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언어학을 전공한 경희대 최상진 교수는 컴퓨터 통신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변화는 결코 바람직한 언어생활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다.

“컴퓨터 통신상의 글은 썩어진 즉시 누군가의 독자를 찾게 된다. 때문에 이것은 혼자만의 대화라 아니라 다자간의 대화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사람과 보는 사람은 상대방의 얼굴을 서로 볼 수 없다. 그 익명성으로 인해 함부로 글을 쓰게 되어서 언어의 저급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시인 권태현씨(책나무 주간)도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컴퓨터 통신의 세상은 현실과 다른 곳이다. 그 세계에서는 자극적이고 단순하고 단정적인 글이 통용된다. 인스턴트식처럼 즉흥적이고 재미만 충족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기존의 문법 파괴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이러한 문법파괴적이고 일반사회와는 다른 그들만의 언어생활이 일시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완전히 지금의 문법을 파괴하는 혁명적인 현상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즉 컴퓨터 통신의 글쓰기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하는 측의 주장은 컴퓨터 통신의 글이 지금의 언어생활과 이원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문법체계는 흔들림이 없을 것

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컴퓨터 통신은 사람들의 사회의식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변화된 도덕관념을 비롯한 사회의식의 제형태가 가장 먼저 반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국어학자에 의해 정의되고 가려졌던 표준말을 대중의 손으로 되돌려 놓는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찮다.

언어 저급화 막기 위한 계몽 필요

모리스 블랑쇼는 「미래의 책」에서 “책, 씌어진 글, 언어 등에는 변형이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들의 습관은 그 변형을 향해 열려져 있지만 우리의 전통은 아직도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로 지금'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는 단정하기 힘들다. 단지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언어생활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조명과 검토는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통속화에 대한 경계는 서둘러야 한다”는 최상진 교수의 의견과, “올바른 통신문화를 위해서라도 각 컴퓨터 동호단체나 통신사의 적극적인 계몽이 필요하다”는 권태현씨의 말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인 듯하다.

—이성수 기자